

몽골 60개 매장에 고흥 특산물 전용관 들어선다

마케팅팀·기업 울란바토르 방문 현지 대형 유통기업과 협력 모색 9월부터 전용관 설치 특산물 판매



고흥군이 몽골 최대 주류기업인 '에이피유 컴퍼니'에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몽골에 고흥 특산물 전용관 들어선다. 고흥군은 지난 9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현지 유통 및 음료 제조업체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고흥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유자 음료 공동 개발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고흥군 농수산마케팅팀 김재운 팀장과 수출 전문가(주대진 장진환 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몽골 대표 유통기업인 '미니텔 그루'와 '노민그룹'을 차례로 방문해 고흥 특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몽골 최대 음료업체와 주류기업을 포함한 현지 가공식품-음료 제조사들과의 공동 사업 협력 방안도 폭넓게 모색했다. 몽골 내 60개 직영 매장을 운영 중인 '미니텔 그루'는 고흥 유자 음료를 비롯해 김부각·조미김 등 고흥산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전 매장에 '고흥 식품 전용관'을 설치해 고흥 특산물을 상시 전시·판매할 계획

이다. 고흥군은 이를 계기로 현지 소비자 대상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몽골 최대 유통기업 '노민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고흥산 쌀의 본격적인 몽골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노민그룹'은 고흥 쌀의 탁월한 품질과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수출 확대를 위한

물류 최적화와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실행력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몽골 주요 음료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흥 유자를 활용한 프리미엄 음료 공동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 몽골 최대 음료기업인 '비타핏 베버리지'는 고흥 유자의 우수한 기능성과 청정 이미지가 몽골의 건강 중심 소비 트렌드와 완벽히 부합한다며, 유자 음료 공동 개발

에 대한 강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또한, 현지 대표 로컬 음료기업인 '문 주스' 역시 고흥 유자의 향, 맛, 품질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음료·시럽 등 다양한 제품군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드러냈다. 고흥군은 향후 현지 시장의 반응을 반영해 수출용 제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몽골 최대 주류기업인 '에이피유 컴퍼니'와의 협이다. '장기즈칸 보드카', '생구르 맥주' 등으로 잘 알려진 '에이피유 컴퍼니'는 프리미엄 보드카 시장 차별화 전략의 목적으로 고흥 유자를 원료로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에이피유 컴퍼니'와 함께 공동 시제품 개발, 유자 향 추출 및 숙성 방식 테스트 등 구체적인 기술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몽골 현지에서 고흥 특산물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유자 음료 및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제품 개발과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중 유자 작황 견본을 발송하고, 내년 3월까지 음료 레시피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뒤, '한-몽 합작 음료 시제품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매실 복숭아씨살이좀벌 광양시 13~16일 적기방제 당부



광양시가 매실 농가를 대상으로 매실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복숭아씨살이좀벌(사진) 1차 방제 적기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복숭아씨살이좀벌은 2010년에 발생해 매년 매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복숭아씨살이좀벌 1마리는 100여 개의 매실에 알을 낳을 수 있고, 부화된 유충이 씨방을 갉아 먹어 매실 수확시기에 과육이 함몰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적기방제가 안되면 최대 90% 이상 과가 발생하는 등 매실 과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날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4회에 걸쳐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예찰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3일에 다람면에서 최초로 성충이 발견됐고, 8일 예찰 당시에는 대부분 후용 상태 단계로 발견돼, 1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충의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올해는 개화 시기가 늦음에 따라 수정도 늦어 현재 매실 크기는 직경 3~4mm 정도로 복숭아씨살이좀벌의 산란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용당뚝방길 벚꽃축제 수익금 산불 성금

수익금 362만원 기탁

순천시 삼산동행정복지센터가 지난 5일 개최한 제11회 용당뚝방길 벚꽃축제 수익금 약 362만원을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사진> 이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방문객들이 참여한 이번 벚꽃축제는 직능단체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지역특색을 살린 먹거리부스가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30세대와 어린이가 있는 가족단위로 행사장을 찾아 벚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등 시민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기획단계부터 산불이재민 돕기 위한 행사 임을 밝힌 가운데 삼산동주민자치회에서는 6개의

체험부스와 4개의 스낵부스 체험비 등 93만1000원을, 삼산동 통장단·새마을가족이 운영하는 푸드코트에서는 운영수익금 218만5130원을 산불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기탁 해 왔다. 행사장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인 '기린본집'에서도 산불이재민을 돕고 싶다며 20만원을, 삼산동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30만원의 자발적 성금을 기탁해 왔다. 이갑섭 삼산동주민자치회장은 "꽃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용당동뚝방길 벚꽃축제'가 순천의 봄을 대표하는 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 도양읍 1기 청소년자율방범대 발대식

방범순찰 통해 안전의식 고취

고흥군 도양읍 자율 방범대는 지난12일 녹동 선후회관에서 청소년 자율 방범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고흥군 의회 김준근 부의장과 박준희 도양읍장·안병근 파출소장·김태한 자율 방범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관내 고등학생 10여명으로 구성된 제1기 청소년 자율 방범대는 파출소 직원·자율 방범대원들과 함께 방범순찰, 범죄예방 활동, 안전 활동을 나선다. 이를 통해 방범대는 스스로 안전을

지켜 나가는 주체로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청소년 자율방범대는 도양읍 파출소와 자율방범대와 함께 매월 셋째주 토요일 취약지역 순찰 및 드론소와 지역축제시 지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 선도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양읍 자율 방범대는 녹동선후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30여년째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여수시 스미싱 주의 당부

여수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관공서 사칭 스미싱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자서비스로는 발송하지 않고 있다. 만일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061-659-2392)이나 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경찰청 어플 '시티즌 코난' 등을 설치해 예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인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118)나 경찰서(112)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기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4월호

2025년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 70주년

- 1956년 창설, 60만 명의 꿈 키워온 예술 대제전
- '글로벌 스타' 활약 호남예술제 수상자들
- 화보로 만나는 호남예술제 70년사

호남 예술제

꽃피는섬 예술만발 섬티아고
공간의 재발견②
어몽서우
대학자 고봉의 서원 선비정신, 전통문화 배움터로 변신

예향 초대석

식물 참모습 그리는 식물학 일러스트레이터
이소영
"결이 있는 식물과 더불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⑧
따뜻한 봄날 당일치기 섬 여행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④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유망 소도시 기행①
'진짜'를 만나는 즐거움, 독일 본 Bonn

기획-구례 레포츠 관광
과리산과 나래와, 스카이런
섬진강을 발아래, 스카이 베이크

문화계 화제
예술 놀이터 만드는 기업들 '뚝뚝의 미술관'